

# 수 학 보 고 서

소 속	(경영대학/국제통상학과)	
파 견 국 가	프랑스	
파 견 대 학	Université Catholique de Lille	
파 견 기 간	시작	(2023년/1월)
	종료	(2023년/5월)

준 비 과 정	<b>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기까지 과정</b>
	저는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하여 본교 영어과목 성적을 잘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. 또한, 학교에서 진행되는 외국인 유학생과의 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. 이후, 국제교류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를 작성하였고 면접준비도 열심히 하였습니다.
	<b>파견교 지원 과정</b>
	먼저 유럽권의 학교 중 기숙사가 포함된 학교와 수도에서 멀지 않은 도시로 선정하였습니다. Université Catholique de Lille은 기숙사가 포함되었고 파리와 가깝고 파견교에 대한 정보가 많아서 지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.
	<b>파견국가 출국 준비 과정 (비자, 항공권, 준비물 등)</b>
비자는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항공권은 미리 구매하는 것이 좋겠지만 저는 비자가 예상과 다른 날짜로 나와서 항공권을 변경해야 했습니다. 따라서 비자가 나온 후 안전하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	
파 견 학 교	<b>공항 픽업 &amp; 오리엔테이션</b>
	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하여 기차를 타고 릴 프랑드르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. 오리엔테이션은 총 두 차례를 들었습니다. 제가 속한 단과대인 FGES에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과 Université Catholique de Lille에서 진행한 오리엔테이션을 들었습니다. 단과대에서 진행한 오리엔테이션 후 담당자를 따로 만나 시간표를 조정하여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.
	<b>수업 &amp; 학교 활동</b>
파견교 단과대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의 syllabus를 주었고 직접 강의 시간이 겹치지 않는 지 확인하며 시간표를 짰는데 조금 번거로운 과정이었습니다. 수업은 발표, 팀플, 시험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. 제가 속한 단과대는 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동아리는 많이 없었던 거 같습	

	<p>니다.</p> <p><b>기숙사 및 학교 내 편의 시설</b></p> <p>저는 학교와 가까운 Valentine Charrondière에서 지냈고 운이 좋게 넓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. 주방과 샤워실은 공용입니다.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였지만 그래도 금방 적응하여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.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살고 있어서 학교보다 기숙사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밥도 함께 먹었습니다. 학교 내 시설은 대체로 깨끗하고 커피머신과 자판기가 있어서 쉬는 시간에 이용하였습니다.</p>
주변 환경	<p><b>거주지 주변 지역 정보</b></p> <p>기숙사와 학교는 1분거리였고 기숙사 바로 옆에 학교 도서관이 있습니다. 5분거리에는 빵집과 마트도 많아 생활하는데 편리하였습니다. 10분거리에는 공원이 있어서 날씨가 좋을 때 산책하기도 좋았습니다. 또한 버스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큰 쇼핑몰이 있어서 쇼핑하기도 좋았습니다.</p>
	<p><b>파견 대학 소재지 지역 정보</b></p> <p>Lille은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. 벨기에와 가까운 도시이고 기차를 타고 1시간이면 파리에 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주말이나 공강인 날에는 파리에 자주 갑니다. 또한, 릴 공항도 있어서 프랑스의 다른 지역을 여행할 때 편리하였습니다.</p>
	<p><b>비용</b></p> <p><b>등록금 (해당 학생만)</b></p> <p>X</p> <p><b>기숙사 비용 (해당 학생만, 학기당)</b></p> <p>486,24유로 * 5개월</p> <p><b>추가 비용 (교재비, 보험 등)</b></p> <p>보험, 비자, 핸드폰 요금, 기차 구독(79유로), 교통비 등이 들었습니다.</p> <p><b>생활비</b></p> <p>첫 달에 생활용품을 많이 구매하여서 돈이 많이 들었지만, 그 후부터는 외식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까르푸에서 식재료를 사서 요리를 해먹었습니다. 한달에 40-50만원 정도 지출하였습니다. 프랑스는 외식물가는 비싸지만 고기나 야채 등은 싸서 요리를 해먹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.</p> <p><b>한달 평균 지출 비용</b></p> <p>생활비로는 40-50을 지출하였지만 학기 중에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한달 평균 지출 비용은 매달 달랐던 거 같습니다.</p>
<b>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</b>	
<p>교환학생으로서 프랑스에서 살면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을 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.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수업을 들으면서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또한, 프랑스는 유럽의 다양한 국가에 가기에 지리적으로</p>	

좋은 위치였기에 유럽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. 프랑스는 일처리가 느리고 싸데평이 심한 나라지만 여행이 아닌 교환학생의 신분으로 살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행복한 기억이 될 거 같습니다.

사진 첨부 (최소 5장)

